

트로트 여왕이 들려주는 명곡들 속 애뜻한 이야기



추억으로 가는 당신

주현미 지음

이맘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진다. 가사라기 보다는 한 편의 시다. 딱딱함과 쓸쓸함, 애잔함이 밀려온다.



가수 주현미는 오래 전부터 이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젊은 날 봄이 줄 모르고 바쁘게 살다 문득 돌아보면 떠오르는 그 노래.

바로 '봄날은 간다'이다. 가수 전영록의 모친 백설희가 부른 노래로, 1953년 박시춘 작곡가가 곡을 만들었다. '슬프면서 허탈한 감정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풀이낸' 가사는 오랜 흑백 사진 같은 울림을 준다. "연분홍 치마, 새파란 풀잎, 열아홉 시절은 세월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빛나

던 청춘을 슬픈 마음으로 떠나보냈지만, 다시 꽃이 피고 별이 뜨고 새가 날 때를 기다립니다. 봄은 가지만 또다시 봄은 오니까요. 우리 가요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봄날은 간다', 눈을 감고 따라 불러 보면 좋겠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가 들려주는 불후의 명곡 50선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됐다. 한국가요 100년, 주옥같은 명곡들에 얽힌 이야기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 바로 그것. 주현미는 한국가요 100년사를 들려주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음악 인생을 이야기한다. 글과 음악 오디오가 결합된 책에는 QR코드가 있어, 누구든 명곡을 감상할 수 있다.

주현미가 들려주는 명곡들은 공통적으로 애뜻하다. '봄날은 간다'의 작사가 탄생한 배경은 이렇다. 미술을 좋아했던 손로원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 청상(淸霜)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랑을 말없이 지켜보며, 늘 아들을 그리워했다. 죽기 전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말은 노래 모티브가 됐다. "로원이 장가드는 날 나도 연분홍 저고리와 치마를 장롱에서 꺼내서 입을 겨야. 내가 열아홉에 시집오면서 입었던 그 연분홍 저고리와 치마를..."

손로원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6·25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봄날은 간다'라는 가사로 탄생하기에 이른다.

전정 나간 오빠를 대신해 나뭇배를 짓는



가요 '봄날은 간다'는 젊은 날엔 봄이 줄 모르고 살다 문득 돌아보면 떠오르는 그런 노래다. 강을 배경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 풍경. 이보람 '벚꽃' 일러스트. <쌤애파커스 제공>

소녀의 이야기 '치녀 뱃사공'도 애달프다. 1958년 윤부길의 가사를 썼다. 그는 율하기와 윤복희의 부친이다. 윤부길은 어느 날 공연을 위해 낙동강을 건너다, 뱃사공이 처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두 자매가 교대로 노 젓는 일을 하는데, 사연인즉 군에 입대해 소식이 끊긴 오빠를 대신해 나

뭇배를 운행한다는 거였다. 그러나 훗날 여동생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오빠는 전쟁 중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인호가 불렀던 '비 내리는 호남선'은 발표 당시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마했던 신익희 선생이 선거를 앞두고,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숨진다. 국민 지지를 받던 민주당 후보가 사망하면서 정권교체는 무산된다. '비 내리는 호남선' 가사와 맞아떨어지면서 공전의 히트를 친다.

작곡자 박춘석과 작사가 손로원이 경찰에 불려가 고초를 당한 건 불문가지다. 그러나 이들은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1

년 전 노래를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풀려난다. 나중에 신익희의 사인은 뇌일혈로 밝혀진다.

책에는 주현미의 히트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담겨 있다. 올해로 데뷔 35주년을 맞아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추억으로 가는 당신'이 탄생하게 된 얘기를 풀어놓았다. '비 내리는 영동교'는 남곡인이 작곡을, 그의 아내 정은이가 가사를 불렀다. 노래는 강남일대가 개발되던 시대를 담고 있을 뿐, 강남발전과는 상관 없다. 단지 "연인과 이별한 여인이 슬퍼하며 밤비 내리는 영동대교 위를 걷고 있는 내용"이 가사의 즐거리다.

또한 주현미는 '선창', '비 내리는 고모령', '별호자는 읍니다' 등 전통가요에 담긴 사연도 풀어놓는다. 무대 뒤편의 일화, 가수 주현미가 있기까지 남편을 비롯한 가요계 인사들과의 추억도 담겨 있다.

"철들기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지도 모른 채 따라 불렀지요. 옛 노래들이 언제부터인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떠올리고 '남쪽나라 내 고향'은 어디쯤일까 궁금해지고 허리춤에 맡아주는 '도토리묵'은 어떤 맛일까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제야 그 노래들을 제대로 불러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한 곡 한 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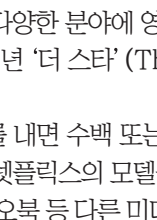
<쌤애파커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넷플릭스 효과

케빈 맥도널드 외 지음, 유건식 옮김

최근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넷플릭스'다. 2013년 '더 스타' (The Star)는 2013년 이 용어를 이 같이 규정했다.

"많은 회사가 월 구독료를 내면 수백 또는 수천의 영화와 TV 쇼를 성공적으로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의 모델을 따라하고, 음악·라디오·신문·잡지·도서·만화·오디오북 등 다른 미디어에서도 이를 채용하는 현상."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시각에서 넷플릭스 효과를 다룬 책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스리지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케빈 맥도널드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새크라멘토대 영화학 강사인 다니엘 스미스-로우지가 펴낸 '넷플릭스 효과'가 그것. 번역은 KBS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하면서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초로 '굿닥터'를 미국 ABC의 2017, 2018 시즌 리메이크 시켰던 유건식 박사가 맡았다.



저자들은 넷플릭스의 효과에 대해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엄청난 속도로 융합되고, 매스미디어 비즈니스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2016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현재까지 추진하는 전략이 남미와 유럽에서 했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들은 멀티 스크린, 멀티 플랫폼, 네트워크된 디지털 환경의 트렌드를 통찰력 있게 조망한다. 미디어 연구에서 시급한 넷플릭스의 기술 활용, 광고집중, 콘텐츠 제작 및 배급 혁신, 몰아보기 등 디지털 경제의 이데올로기 전반을 다룬다. 책을 번역한 유건식 박사는 "이 책은 넷플릭스 효과가 어떻게 다른 산업의 발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넷플릭스의 성장이 어떻게 미디어, 기술 및 사회를 앞으로 진전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울·5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울·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운월관산

진현성 지음

진현성 시인(89·광주진내과원장)이 시집집 제14권 '운월관산'을 펴냈다.

지난해 미수(米壽·88)를 맞아 제13시집까지 모두 1만300수 시를 창작했던 시인이 1년만에 1128편을 보낸 것이다. 이로써 진 시인은 1만1428편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을 보유하고 됐다.

자막까지 시인은 '테크놀로지' 세상에 대한 희원을 추구해왔다. 그의 시세계는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우주까지 확장될 정도로 깊고 넓다. 오랫동안 현직 의사로 진료를 하며 탐색한 시상을 독특한 언어와 스타일로 형성화 해왔다.

진 시인은 "자연적 체계를 보충하는 과학적 세계가 발전하려면 인공 단백질 합성이 나 나무에 밥이 열리는 단계의 과학문명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미래사에 화두를 던져 본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집에서도 '사고력 있는 물질계', '전기 에너지', '항후세 방향' 등 이색적인 소재를 과학자적 시각과 인문적인 소양으로 푼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김포전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은 '추임새'에서 "진현성은 천지간(天地間)의 시인이다. 천지간에 그 무엇이든, 그것이 먼저 한 틀이든, 새 한 마리든, 풀 한 포기든, 하늘도, 땅도, 우주도,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量子力學)도, 그의 시야에 들어오면, 그것은 암시가 되고 시작상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은 이속고 시적 변용(變容)을 일으키게 된다"고 평한다.

한편 작품집에는 김종 시인의 '진현성 시인의 '雲月觀山' 독백', 노창수 시인의 '아 이리니 사회를 풍자한 대립(對立)·대구(對句)의 시학' 해설도 수록돼 있다.

<한림·3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

김형민 지음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대체로 그들의 탁월한 생애를 담은 전기나 그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다. 한 분야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그들은 사랑에 있어서도 성공했을까?

오드리 헵번, 프리다 칼로, 윤동주 등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가 출간됐다.

'삶을 만나다', '그들이 살았던 오늘' 등을 펴낸 저자 김형민은 그들의 내밀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재앙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무기는 오직 '사랑'이라고 말한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랑법은 다양하다.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남성들을 물리치고 예술가의 자유를 선택한 이사도라 단컨, 평생 가난한 화가로 살았지만 타고난 사랑꾼으로 행복의 나뭇잎을 보낸 박수근과 김복순, 시대와 싸우다 감옥에 갇힌 고통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애편지를 주고 받은 문이환과 박용길 등...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동력이 됐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책에는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연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화석이 된 '발다로의 연인',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주저 없이 껴안은 '체르노빌의 연인',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혼녀가 준 바이올린을 연주한 '바이올리니스트' 등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저자는 "김수영 시인이 '나에게 늦추발보다도 더 짙은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고 노래했듯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고 전한다. <어마미미·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